



오시는 길

가사오카	기차	JR 신오사카역(산요 신칸센) — 신구라시키역(산요 선) — 가사오카역(도보) — 스미요시항(5분) / 후시고에항(10분) JR 하카타역(산요 신칸센) — 후쿠야마역(산요 선) — 가사오카역(도보) — 스미요시항(5분) / 후시고에항(10분)
	자동차	다양한 장소에서 출발 — 가사오카 IC (산요 고속도로) — 스미요시항/후시고에항(15분)
	선박	스미요시항에서 다카시마, 시라이시지마, 기타기시마, 마나베시마, 오비시마, 고비시마, 무시마(여객선) 후시고에항에서 시라이시지마/기타기시마(페리)

마루가메	기차	JR 오카야마역(마쓰야마 또는 고치행 한정 급행열차로 40분) — 마루가메역 — 마루가메항(도보 10분) JR 다카마쓰역(요산 선(급행 서비스)로 30분) — 마루가메역 — 마루가메항(도보 10분)
	항공	다카마쓰 공항(택시로 40분, 공유 택시*1로 50분, 리무진 버스*2로 75분) — 마루가메역 — 마루가메항(도보 10분) *1 다카마쓰 공항 셔틀 서비스 *2 마루가메/사카이데/공항 리무진 버스
	자동차	다양한 장소에서 출발 — 사카이데 기타 IC(세토 주오 고속도로) — 마루가메항(15분) 다양한 장소에서 출발 — 사카이데 IC/젠스지 IC(세토 주오 고속도로) — 마루가메항(15분)
	선박	마루가메항 — 혼지마(페리로 35분, 여객선으로 20분) 고지마 간교항 — 혼지마(여객선으로 30분) 마루가메항 — 히로시마(페리로 45분, 여객선으로 20분)

쇼도시마	기차	JR 오카야마역(산요 신칸센) — JR 오카야마역(마린 라이너) — JR 다카마쓰역 — 다카마쓰항(페리)에서 섬의 여러 항구에 도착 JR 오카야마역 — 신오카야마항(페리) — 도노쇼항 JR 히메지역(산요 신칸센) — 히메지항(페리) — 후쿠다항
	항공	다카마쓰 공항 — JR 다카마쓰역 — 다카마쓰항(페리)에서 섬의 여러 항구에 도착 간사이 공항 — JR 신오사카역 — JR 히메지역 — 히메지항(페리)에서 후쿠다항 도착
	선박	다카마쓰항에서 도노쇼항, 이케다항, 구사카베항(페리로 60분) 다카마쓰항에서 도노쇼항(고속 페리로 35분) 신오카야마항 — 도노쇼항(페리로 70분) 히나세항 — 오베항(페리로 60분) 우노항 — 데시마 이에우라항 — 데시마 가라토항 — 도노쇼항(여객선으로 60분, 페리로 90분) 히메지항 — 후쿠다항(페리로 100분) 고베항 — 사카테항(페리로 200분) — 다카마쓰항(페리로 70분)
데시마	선박	도노쇼항에서 가라토항(여객선으로 20분, 페리로 30분) — 이에우라항(여객선으로 15분, 페리로 20분) 다카마쓰항 — 가라토항(여객선으로 35분) *토요일 및 공휴일만 운행 다카마쓰항 — 이에우라항(여객선으로 35분) 우노항 — 이에우라항(여객선으로 25분, 페리로 40분) — 가라토항(여객선으로 15분, 페리로 20분) — 도노쇼항

세토우치 비산 제도 일본 문화유산 진흥 협의회

- 가사오카 산업부, 상업관광과, 일본 문화유산진흥청**
TEL:0865-69-1177 <https://www.city.kasaoka.okayama.jp/site/japan-heritage/>
- 마루가메 시민생활부, 생활환경과**
TEL:0877-24-8809 <https://www.marugame-happy-life.jp/islands/>
- 도노쇼 상업관광과**
TEL:0879-62-7004 <https://www.town.tonosho.kagawa.jp/kanko/>
- 쇼도시마 상업관광과**
TEL:0879-82-7021 https://www.town.shodoshima.lg.jp/kanko/other_info/heritage/

세토우치 비산 제도 웹사이트
<https://stone-islands.jp/>



일본 문화유산 포털 사이트
<https://japan-heritage.bunka.go.jp/ja/>

‘일본 문화유산’은 일본 지역의 역사적 매력과 특색을 강조하는 문화와 전통의 이야기로, 일본 문화청 인증을 받은 이야기를 말합니다.

2020 문화청 문화 자원 활용 사업 보조금(관광진흥사업)

パンフレット.韓国語



JAPAN HERITAGE

日本遺産



丸亀市
마루가메

土庄町
つじまち

일본 문화유산
가이드북

知ってる!?!
悠久の時間が流れる石の島
~海を越え、日本の礎を築いた せとうち備讃諸島~

아시나요?
돌의 섬, 유구한 시간이 흐르는 곳.
~바다를 건너 일본의 기초를 닦은 세토우치 비산 제도의 돌~

SETOUCHI #080
STONE STORY
JAPAN HERITAGE | SETOUCHI BISAN ISLANDS

가사오카

마루가메

도노쇼

쇼도시마



小豆島町
まめじま

美しいだけじゃなく
楽しいだけじゃなく
うれしかったのは、
時を超えたあの日に
出会えたことです。

아름다움보다 즐거움보다 나를
진정으로 행복하게 만든 것은
시간을 초월하는 것을 발견한
날이었습니다.

일본의 문화유산
#080

아시나요?

돌의 섬, 유구한 시간이 흐르는 곳.

~바다를 건너 일본의 기초를 닦은 세토우치 비산 제도의 돌~

이야기

세토우치 비산 제도가 있는 세토 내해에서 부드러운 바람을 느끼고 천혜의 해양 문화 경관을 경험하며 고단한 일상 속 휴식을 취하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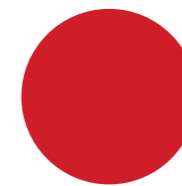
세토우치 비산 제도는 수세기 동안 건설에 필요한 양질의 석재를 생산해 왔습니다.

오사카 성, 일본은행 본점 건물, 도쿄역 마루노우치 본관 등 세토우치 비산 제도의 화강암으로 지어진 역사적인 건물이 많습니다. 돌섬에 흔적이 남아 있는 채석장 유적은 웅장한 경관을 이루고 있으며, 바닷길을 따라 석재를 거래하며 쌓은 부는 섬에 독특하고 역사적인 도시 경관을 남겼습니다.

일본 유산으로 등재된 채석장 유산이 남아 있는 돌의 섬으로 떠나보시는 건 어떨까요.

400年の歴史浪漫を巡る旅に出かけよう

400년의 역사를 여행하세요



JAPAN HERITAGE



せとうち備讃諸島

石の島のものがたり



일본의 문화유산 #080

아시나요?

돌의 섬, 유구한 시간이 흐르는 곳.

~바다를 건너 일본의 기초를 닦은 세토우치 비산 제도의 돌~



돌을 운반하는 데 사용된 바닷길은 섬에 풍요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비산 세토 해역에는 모래사장으로부터 작은 평지, 가파른 언덕, 깊은 협곡, 돌로 된 산으로 지형이 구성된 다양한 섬이 산재해 있습니다. 화강암은 섬의 모든 곳에서 볼 수 있습니다.

섬 밖으로 거대한 돌을 운반하기 쉽도록 채석장은 섬의 항구와 가까이 있습니다. 세토 내해는 채취한 돌을 일본 전역으로 운반하는 중요한 역할을 했으며, 채석의 개발에는 석재 절단 기술의 향상 만큼이나 바닷길에 대한 접근이 중요했습니다.

과거 내해의 빠른 조류를 타고 돌을 운반하는 유명한 선원 집단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중세의 시와쿠 수군으로 그 기원이 거슬러 올라가는 시와쿠 상선업자들은 에도 시대에 뛰어난 선박 항해 기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100톤이 넘는 거대한 돌을 해상으로 운반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비산 제도의 마을은 일반적인 교차로와 사거리가 없는 좁은 길로 미로처럼 만들어졌는데, 이는 전국시대의 전형적인 방어를 위한 설계입니다.

특히 시와쿠 제도 혼지마의 가사시마 지구는 삼면이 요새인 산으로 둘러싸여 있으며, 좁은 골목길이 복잡하고 혼란스럽게 배치되어 침입자의 시야를 차단하고 있습니다. 반면, 구내 큰길가에 있는 상인들의 우아한 집은 해상 운송으로 창출된 부와 번영을 보여줍니다.



지금도 현지인들의 삶에는 돌, 바다, 그리고 사람들에 의해 창조된 희귀한 전통이 숨쉬고 있습니다.

에도 시대부터 시작된 채석장은 메이지 시대부터는 지역 산업으로 발전해 왔습니다. 이 섬들은 최대 번성기에 석재를 깎고, 가공하고, 거래하고, 운송하는 중심지로 번창했습니다. 섬들의 번영은 석재 광부들의 독특한 문화를 만들어냈습니다.

광부들이 부르던 노동요와 쇼도시마의 경축 행사에 나오는 전통 음식인 '이시키리 초밥'이 대대로 전해집니다. 석재 광부들이 만들어낸 이 소중한 문화는 비산 제도에 뿌리내리고 있습니다.

채석업은 가사오카 제도의 시라이시지마와 기타기시마, 시와쿠 제도의 히로시마, 쇼도시마에서 핵심 산업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비산 제도는 석재 산업의 본고장입니다. 그러나, 돌은 단지 이윤을 창출하는 수단만은 아니었습니다. 산속의 거대한 돌은 수세기 동안 승배의 대상이 되기도 했습니다. 원시 종교적 신념은 섬의 일상생활에 통합되어 자리잡고 있습니다. 돌의 문화 유산과 섬에 남아있는 산업 유산을 경험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400년에 걸친 채석의 역사를 가진 이 바다와 섬들은 돌이 들려 주는 매력적인 이야기들로 가득합니다.

일본의 많은 랜드마크 건축물은 세토우치 비산 제도에서 채석한 석재로 지어졌습니다. 이러한 건축물로는 일본은행 본점 건물 등 근대화를 상징하는 서양식 건물과 봉건 시대를 대표하는 오사카 성을 비롯한 주요 성벽이 있습니다.

비산 제도는 오카야마 현과 가가와 현 앞바다의 세토 내해에 위치하며, 쇼도시마, 데시마, 시와쿠 제도, 가사오카 제도 등 다양한 크기의 섬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해안선을 따라 있는 좁은 평지와 돌이 노출되어 있는 산과 해안이 섬의 독특한 풍경을 만들고 있습니다. 노출부의 돌은 에도 시대부터 성곽과 건물의 석벽을 쌓기 위해 채굴되었습니다.

이러한 돌은 '초바'라고 불리는 채석장에서 얻어졌습니다. 철제 췌기를 바위에 박아 단단한 돌을 자르는 방법이 이용되었습니다. 석재를 자르는 데는 고도의 기술이 필요했기 때문에, 석재 광부들은 석재의 조직을 읽어내는 기술을 습득하고 채석용 전문 도구를 사용해야 했습니다.

돌을 깎는 장인들이 이곳을 방문하여 섬 사람들에게 기술을 전수하여 채석 기술이 섬 전체에 퍼지게 되었습니다.

쇼도시마에는 오사카 성의 석벽을 쌓기 위해 돌을 캐낸 옛 채석장이 있습니다. 지름이 2~3m가 넘는 돌들이 거대한 바위에서 떨어져 나와 이곳 주변에 흩어져 있습니다. 버려진 돌에는 철제 췌기를 박아 직사각형 모양의 구멍이 난 흔적이 있으며, 그 위에 봉건 영주인 다이묘의 상징이 있어 소유권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비산 제도에서 채석된 돌들은 일본 전역으로 운송되었습니다. 이 돌은 일본의 근대 건축 역사를 말해주며, 일본을 대표하는 건축물을 짓는 데 사용되어 왔습니다. 석재의 본고장인 비산 제도에서는 4백 년 된 채석 역사의 흔적이 발견됩니다.



채석에 대해 알아보기

이 그림은 에도 시대의 고도로 숙련된 광부들의 채석 기술을 보여줍니다. 쇠로 된 췌기와 망치가 돌을 쪼개는 주된 도구였습니다.



기계화 이전

1960년대 초 촬영된 이 사진은 한 채석 광부가 바위에 췌기를 박아 넣어 사람의 힘으로 돌을 쪼개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비산 제도의 석재 채석업을 지탱한 해상 운송

석재 블록은 세토 내해를 통해 일본 전역으로 운송되었습니다. 해운업은 비산 제도에 부와 번영을 가져왔으며 그곳의 채석업을 촉진했습니다.

1896

일본은행 본점 건물

일본은행 본점 건물의 외벽은 하얀 석재로 만들어졌는데, 그 중 상당수는 기타기시마에서 가져온 것입니다. 이 건설 공사는 일본의 금융 시스템을 현대화하는 국가적 프로젝트로 여겨졌으며, 기타기시마는 그 자재를 제공하는 특별한 기회를 얻었습니다.



1914

도쿄역 마루노우치 본관 건물

이 붉은색 블록의 건물은 일본 철도망의 중심지로 알려진 도쿄역의 상징입니다. 외벽 일부에 사용된 석조 블록은 기타기시마에서 가져온 것입니다.

에도 시대 1603~

메이지 시대 1868~

다이쇼 시대 1912~ 쇼와 시대 1926~

헤이세이 시대 1989~ 레이와 2019~

1620

오사카 성의 돌축대

오사카 성은 1620년대에 재건되었습니다. 도쿠가와 막부는 새로운 돌축대를 건설하는 임무를 봉건 영주 60여 명에게 맡겼습니다. 비산 제도에 있는 화강암 채석장에서 가져온 거대한 바위가 사용되었습니다.



1888

황궁 정문의 석조 다리

황궁 정문에는 주위를 둘러싼 한자 위를 지나는 두 개의 목조 다리가 있었습니다. 이는 1888년 황궁이 건설될 때 석조 다리와 철조 다리로 교체되었습니다. 석조 다리는 쇼도시마에서 가져온 석재 블록으로 지어졌습니다.



1933

야스쿠니 신사 도리이 문

이는 일본에서 가장 높은 석조 도리이 문 중 하나입니다. 각 기둥의 석재는 길이 12m, 지름 1.2m, 무게 50t에 달합니다. 도리이의 거대한 석재는 기타기시마에서 생산되어 바다로 운반되었습니다.



1934

메이지 세이메이 빌딩

건물 외관에 사용된 화강암은 기념물 같은 기둥 형태가 특징으로, 기타기시마에서 가져온 것입니다. 일본의 현대 서양식 건축물을 대표하는 건물입니다.





가사오카

Kasaoka city, OKAYAMA

P.18▷21

세토 내해와 크고 작은 31개 섬은 멋진 풍경을 빚어냅니다. 거대한 돌과 특이한 암석 형상이 어우러진 경이로운 자연 경관은 다른 곳에서는 볼 수 없습니다. 산꼭대기까지 이어지는 산책로, 섬의 산업 유산을 대표하는 채석장의 풍경을 즐겨보세요.

- 다카시마 섬 [다카시마]
- 가이류지 [시라이시지마]
- 시라이시지마 섬 [시라이시지마]
- 기타기석 채석장 [기타기시마]
- 기타기시마 폐채석장의 호수 [기타기시마]
- 기타기시마의 채석 및 석공 용구 [기타기시마]
- 지노하마 해변의 석조 부두 [기타기시마]
- 기타기시마 채석공의 노동요 [기타기시마]
- 옛 영화관 - 히카리 시네마 [기타기시마]
- 마나베 가문 주택 [마나베시마]
- 오비시마 고대 제례지 [히시마]
- 오이시 산 [무시마]

마루가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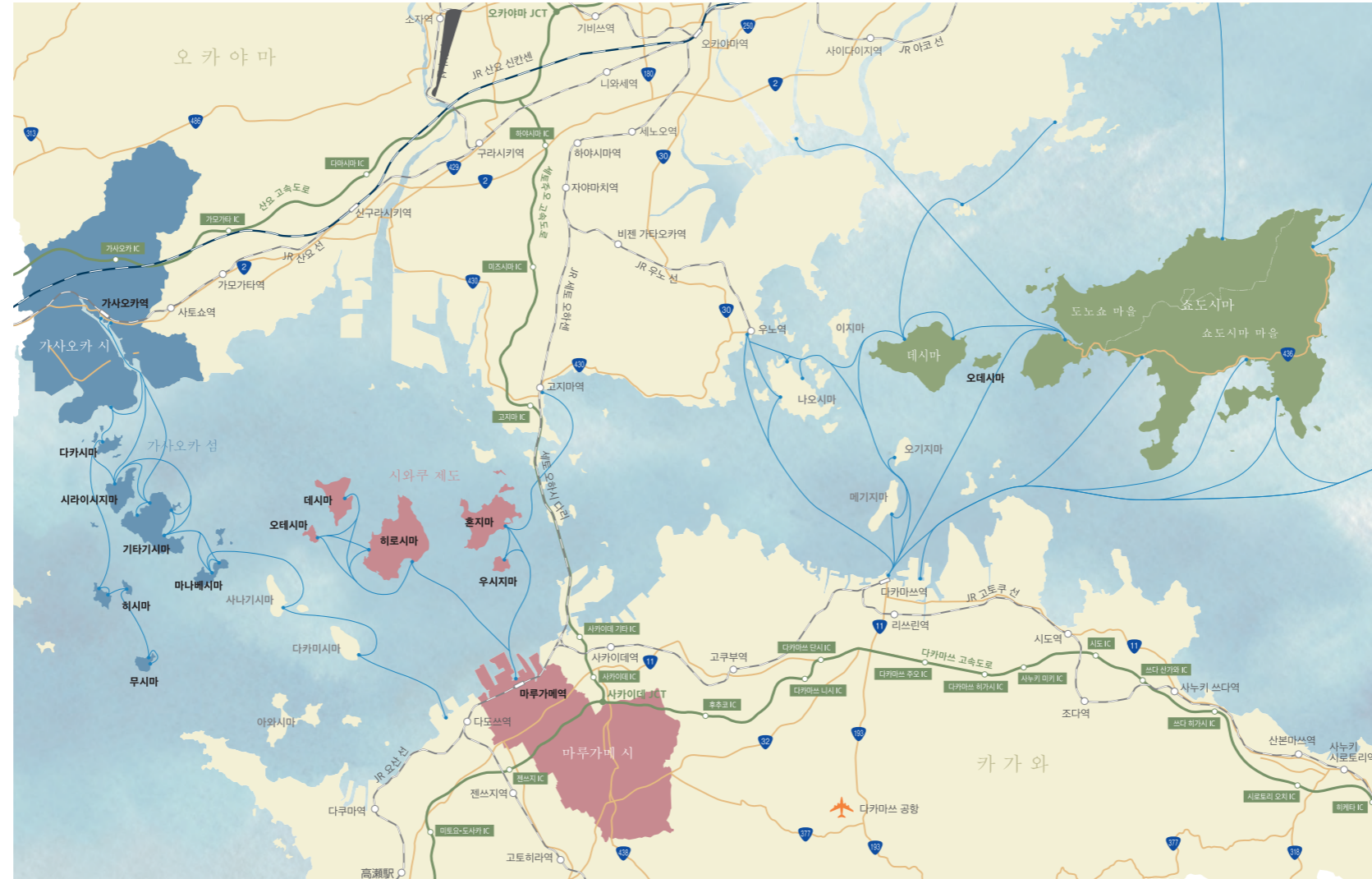
Marugame city, KAGAWA

P.14▷17

비산 제도에서 시와쿠 제도는 특히 수군과 연관이 있는 지역입니다. 혼지마에는 시와쿠-긴반쇼라는 시와쿠 정부 기지가 있고, 역사적으로 유명한 항구도시인 가사시마는 시와쿠 화물선의 거점으로 번창했습니다. 히로시마에는 오토잔(오토 산)의 자연 화강암 풍경과 함께 돌 등대와 돌 창고 등의 볼거리가 풍성합니다.

- 시와쿠 혼지마의 다칸보 산 채석장 터 [혼지마]
- 지역 수장의 묘 [혼지마]
- 고가라스 신사 도리이 문 [혼지마]
- 시와쿠 긴반쇼(시와쿠 행정 사무소) [혼지마]
- 가사시마 촌락 [혼지마]
- 치토세자(치토세 극장) [혼지마]
- 이시노사토 박물관 [히로시마]
- 하부시이와 등대 [히로시마]
- 하부시이와 등대 기름 창고 [히로시마]
- 오노에테이(오노에 저택) [히로시마]
- 오토잔(오토 산)과 오토사바쿠(오토 사막) [히로시마]
- 신교잔(신교 산) [히로시마]

세토우치 비산 제도: 400년의 이야기 ~ 섬의 역사, 문화, 삶과 밀접히 연관된 돌 ~



쇼도시마, 테시마

도노쇼 마을, 쇼도시마 마을

Tonosho Town, Shodoshima Town, KAGAWA P.06▷13

쇼도시마 마을에서 간카케이 산지 전체는 지역민의 신앙과 관련된 성지이며, 상징적인 거대 암석과 특이한 암석 형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도노쇼 마을 길가 역에 있는 오사카 성 석재 채석장 유적의 기념공원과 박물관에서는 채석의 역사를 알 수 있습니다. 이 섬에는 사람과 돌의 관계를 느낄 수 있는 곳이 많습니다.

- 오사카성 돌축대 채석장 터 [쇼도시마 마을]
- 채석장 관리소(시치베이 집터) [쇼도시마 마을]
- 오사카 성 축대 잔석(후쿠다) [쇼도시마 마을]
- 오사카 성 축대 잔석(이시바) [쇼도시마 마을]
- 도비코시 채석장과 오미 잔석군 오사카 성 잔석 공원 [도노쇼 마을]
- 오미 채석장 [도노쇼 마을]
- 센게-고세바라 채석장 터 [도노쇼 마을]
- 모리가타키 채석장 터 [도노쇼 마을]
- 야마노카미 축제 [쇼도시마 마을]
- 하치만 신사의 석조 문 [도노쇼 마을]
- 간장 마을과 채석 공구 [쇼도시마 마을]
- 도노쇼 혼마치의 도시 풍경(미로의 도시) [도노쇼 마을]
- 오베 로쿠로 부두 터 [도노쇼 마을]
- 17세기 쇼도시마의 그림 지도 [도노쇼 마을]
- 간카케이 협곡 [쇼도시마 마을]
- 이케다 관람석 [쇼도시마 마을]
- 도미오카 하치만 신사의 관람석 [도노쇼 마을]
- 쇼도시마의 산악 영지 [도노쇼 마을·쇼도시마 마을]
- 쇼도시마 농촌 가부키 무대와 관람석 [도노쇼 마을·쇼도시마 마을]
- 가사네이와 바위 [도노쇼 마을]
- 이시카리 스키 [도노쇼 마을]
- 석공들의 노동요 [도노쇼 마을·쇼도시마 마을]
- 옛돼지와 사슴으로부터 농작물을 보호하는 시시카기 석벽 [도노쇼 마을·쇼도시마 마을]
- 가라토오카의 공동 용수 시설 [도노쇼 마을]

48 가지 이야기와 48개 문화 유산

'시간이 한가롭게 흘러가는 돌의 섬'이라는 제목으로 일본 유산에 속한 48가지 이야기 컬렉션은 가사오카 시, 마루가메 시, 도노쇼 마을, 쇼도시마 마을에 있습니다. 비산 제도에 있는 석재 산업과 관련된 문화재는 48가지 이야기를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아이콘

<p>채석 기술 채석 역사와 문화에서 문화적 의미가 있는 장소입니다.</p>	<p>해상 운송 섬들이 바다와 깊은 관계를 맺고 있는 곳입니다.</p>	<p>석조 경관 고대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석조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장소입니다.</p>	<p>석재와 함께 발전한 생활 방식 석재로 만들어진 독특한 문화와 마을을 체험할 수 있는 곳입니다.</p>
---	--	--	--



쇼도시마·테시마

도노쇼 마을, 쇼도시마 마을

TONOSHO,
SHODOSHIMA
KAGAWA

가가와 현의 쇼도시마는 올리브 산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세토 내해 국립공원은 간카케이와 같은 협곡을 포함한 찬란한 자연경관과 온화한 기후를 자랑합니다. 이들 섬의 돌은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가마쿠라 시대에는 품질이 우수하고 가공이 용이한 테시마석이라는 돌을 채굴했다고 합니다. 오사카 성이 건설되고 이후 재건될 때도 많은 양의 돌이 바다를 건너왔습니다. 외딴 곳의 자연과 '돌과의 접근성'은 섬의 생활과 문화 발전에 기여했습니다.

이 외딴 섬들은 풍부한 역사를 지니고 있으며 아름다운 경치가 숨통을 틔워줍니다.



쇼도시마,테시마

SHODOSHIMA, TESHIMA

쇼도시마는 2개의 마을로 구성됩니다. 쇼도시마 마을과 도노쇼 마을이지요. 쇼도시마는 테시마를 비롯하여 세토 내해에 속한 20개 이상의 섬 가운데 두 번째로 큰 섬입니다. 섬 주민들은 세토 내해의 따뜻한 기후를 이용하여 올리브를 재배하여 관광 발전에 기여했습니다. 아름다운 풍경도 많아서 최근 몇 년간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찾고 있습니다. 자동차를 운반할 수 있는 여객선을 포함하여 하루에 도착하는 선박의 수가 일본에서 가장 많은 곳 중 하나입니다.



일본 문화유산을 구성하는 문화재

쇼도시마, 데시마

| 도노쇼 마을 | 쇼도시마 마을 |

쇼도시마는 오랜 역사와 문화, 아름다운 경치가 있는 멋진 지역입니다. 간카케이 협곡은 그 중 하나를 대표하는 곳입니다. 돌과 깊은 연관이 있는 이 섬의 역사는 섬 곳곳에서 볼 수 있습니다. 오사카 성 돌 축대의 상당 부분에 기여한 채석장, 현지의 석조 관람석, 일상 생활의 일부인 바위 등이 그것입니다. 이 인상적인 바위산의 거석들은 오늘날까지도 경외심과 함께 소중하게 여겨지고 있습니다.



도비코시 채석장과 오미 잔석군



도비코시 채석장과 오미 잔석군 오사카 성 잔석 공원

호소카와 가문은 이곳에서 운영하던 채석장에서 오사카 성 재건에 사용할 석재를 실어 운반했습니다. 그 시대로부터 남겨진 두 개의 큰 석재 블록에는 일련 번호와 채석장의 삼각형 표시가 새겨져 있습니다. 메이지 시대에는 오미 잔석장을 따라 남은 돌들을 쌓았습니다. 그 중 대부분은 1999년에 이 공원이 만들어졌을 때 이곳으로 옮겨졌습니다. 이 돌들은 에도 시대 석공들의 솜씨를 보여주고 있으며, 석공 도구와 오사카 성곽에 대한 정보를 전시한 건물이 있습니다. **현 지정 사적지**



센게·고세바라 채석장 터

이 채석장에서는 히고 번과 구마모토 성의 가토 다이묘가 운영하여 오사카 성의 재건을 위한 석재를 생산했습니다. 가토 가문의 문장인 한 쌍의 동심원(뱀눈을 상징)이 새겨진 돌 조각들을 볼 수 있습니다. 가토 가문에 전해 내려오는 것과 다른 물건들이 당시 마을 이장의 집이었던 건물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현 지정 사적지**



오미 채석장

오미 지역은 호소카와 가문이 오사카 성 재건을 위한 석재를 생산하기 위해 운영하는 채석장 세 곳으로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채석장 터에는 여전히 평평한 돌과 돌 부스러기가 흩어져 있습니다. **지방 사적지**



오사카성 돌축대 채석장 터 덴구이와에는 덴구이와이스, 미나미타니, 도후이시, 가메사키, 하치닌이시 채석장이 있습니다.

400년 전 도쿠가와 막부가 오사카 성을 재건할 때, 여러 번의 다이묘들이 비산 제도에 채석장을 열어 거대한 석재를 운송하여 웅장한 성벽을 쌓았습니다. 이와가타니 지역의 구로다 다이묘가 연 채석장에서는 당시의 정취가 아직도 강하게 남아 있습니다. 총 1600개 이상의 석재가 여전히 남아 있는 가운데, 이곳은 전통 석조 기술을 볼 수 있는 중요한 유적지입니다. **국가 사적지**



역사의 수레바퀴에 남겨진 흔적을 느끼며 자신을 발견해 보세요.

도후이시 채석장 터



채석장 관리소 (시치베이 집터)

약 400년 전, 오사카 성 재건을 위한 석재를 공급하기 위해 쇼도시마의 여러 곳에 채석장이 만들어졌으며, 특히 이와가타니 채석장 터에는 오늘날에도 많은 석재가 남아 있습니다. 관리소는 사업이 끝난 후에도 채석장을 소유한 구로다 가문이 남은 석재의 수량과 품질에 대한 기록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이곳에 살았던 관리인 시치베이의 숨결이 남아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현 지정 사적지**



오사카 성 축대 잔석 (이시바)

이 채석장은 지쿠오 번의 다이묘 다나카에 의해 운영되었고, 선박으로 분주했던 부두와 인접해 있었습니다. 이곳에 오래 전 남겨진 석재에는 다나카 지쿠고라는 표시가 새겨져 있는데, 오사카 성의 축대에 있는 돌에서 발견된 흔적과 유사합니다. **지방 사적지**



오사카 성 축대 잔석 (후쿠다)

옛 마을 기록에 의하면 일본의 여러 성을 설계하고 건축한 것으로 유명한 도도 다카토라(1556~1630)는 쇼도시마의 후쿠다 지역에서 히가시다니, 니시노타니, 도치멘지, 다이아지로 등 채석장 4곳을 운영했습니다. **지방 사적지**



시대를 초월한 희귀한 채석 문화가 사람들을 하나로 모이게 합니다.

덴구이와이스 채석장 터



이케다 관람석



도미오카 하치만 신사의 관람석



가사네이와 바위



곧 떨어질 것처럼 보이는 한 쌍의 포개진(가사네) 화강암 바위는 거대한 화강암 퇴적물이 오랜 세월을 걸쳐 침식되면서 초경질 핵심부만 남은 것입니다. 이 놀라운 거석은 영적 숭배의 대상이 되었으며 고세 이시즈치 신사에서 신이 깃든 영물로 모시고 있습니다.

지금도 돌 문화는 멋진 풍경과 함께 이 섬들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간카케이 협곡



간카케이 협곡은 약 1400만년 전의 화산 활동에 의해 형성된 바위의 풍화작용과 침식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일본에서 가장 아름다운 3대 협곡 중 하나로 꼽히는 곳입니다. 길이 약 4km, 폭 8km에 달하는 협곡 지대에는 독특한 형상의 암석이 많이 있습니다. 주변의 산들은 예로부터 신성한 땅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국가 명승지



모리가타키 채석장 터



메이지 시대부터 이 채석장은 후쿠다 지역의 석조업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했습니다. 이 채석장에서 운반된 돌이 황궁 정문의 다리와 후시미 모모야마의 메이지 황제 능에 사용되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당시 변장했던 채석장에 오늘날 남아있는 것은 바위 표면에 남은 공구 자국과 빗물로 가득 찬 호수 뿐입니다.
국가 지정 중요 유형 민속 문화재



이케다 관람석



세토 내해와 마주보고 있는 이 관람석은 자연 지형을 최대한 활용한 것입니다. 길이 80m, 높이 18m의 이 건축물은 매년 열리는 가을 축제 공연을 보기 위해 지어졌습니다. 완공 연대는 알 수 없지만, 1812년 신사에 헌납된 축제 그림에 이 관람석이 그려져 있습니다.
국가 지정 중요 유형 민속 문화재



도미오카 하치만 신사의 관람석



도미오카 하치만 신사의 북서쪽 끝에 있는 언덕에는 석조 건축으로 쌓아 올린 관람석이 있습니다. 에도 시대 후기(1603~1867)에 건립되어 그 이후로 매년 가을 축제 관람객들을 위해 점차 연장된 관람석입니다.
지방 지정 중요 유형 민속 문화재



하치만 신사의 석조 문



데시마 이에우라 하치만 신사 입구 부근에 있는 이 당당한 문은 흔히 데시마석이라고 응회질 각력암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기둥의 직경은 39cm입니다. 왼쪽 기둥에는 1474년에 해당하는 날짜가 새겨져 있고, 오른쪽 기둥에는 공사 감독관의 이름과 직함이 새겨져 있습니다.
현 지정 유형 문화재(건축물)



가라토오카의 공동 용수 시설



데시마 가라토오카 지역의 단야마 산 기슭에는 1929년에 석조 저수조가 건설되어 지역 주민들에게 깨끗한 물을 공급했습니다. 위로는 화강암 블록을 일렬로 쌓은 석벽이 있습니다. 산의 샘물은 위쪽 저수지에서 세 개의 작은 저수조와 한 개의 큰 저수조로 흘러들어와 각각 다른 용도로 물을 공급합니다. 이 시설은 데시마 섬의 생활 환경에서 돌이 전통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예입니다.
국가 지정 유형 문화재(건축물)



미로의 도시



석공들의 노동요



따뜻한 만남은 여행을 잊을 수 없게 만듭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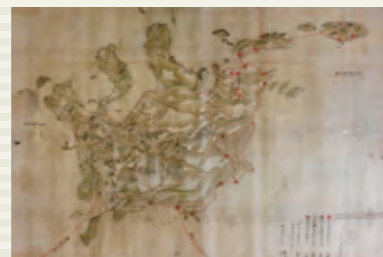
쇼도시마 농촌 가부키 무대와 관람석 (나카야마 무대)



오베 로쿠로 부두 터



이 부두는 오사카 성으로 운반하기 위해 현지에서 채석한 돌을 싣기 위한 곳이었습니다. 근처에는 분고 다케다 번의 다이묘인 나카가와 히사모리 소유의 채석장이 있었습니다. 오사카 성이 완공된 후에도 이즈메 마쓰에 번의 다이묘 마쓰다이라 나옴사다가 막부의 허가를 받아 채석장을 운영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방 사적지



17세기 쇼도시마의 그림 지도



막부는 게이초 시대(1596~1615)와 쇼호 시대(1644~1648)에 전 일본의 그림 지도를 그리라고 명령했습니다. 이 쇼도시마 지도의 연대는 1605년으로, 게이초 시대 지도 가운데 몇 안 남는 지도 중 하나로서 매우 중요한 역사적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 지도는 섬에서 돌을 운반하는 내해 선원들이 알고 있는 선진적인 조사 기법을 이용해 그려졌습니다.
현 지정 유형 문화재(역사 자료)



쇼도시마 농촌 가부키 무대와 관람석 히토야마 무대



매년 5월 3일 히토야마 지구의 리큐 하치만 신사에서 가부키 공연이 공물로 바쳐집니다. 석조물을 이용해 무대 앞의 원만한 경사를 12개 단으로 된 관람 구역으로 만들어 매년 관객을 가득 채우는 공간으로 탈바꿈시켰습니다. 산과 바다 사이 쇼도시마의 고지대에 위치한 나카야마의 지정 무형 문화재로서 농촌 가부키 극장의 오랜 전통이 있습니다. 석조 관람석이 있는 상설 무대에서 가부키를 공연하는 것입니다. 나카야마 지역은 센마이다(천 개의 논 계단)라고 불리는 계단식 논으로 유명한 지역입니다. 이 논은 경작 가능한 땅이 거의 없는 이 섬에 밭을 만들기 위해 돌로 쌓은 것입니다. 쇼도시마 사람들은 풍년을 기원하고 농촌 가부키의 전통을 지키면서 아름다운 계단식 논을 유지하기 위해 지혜와 기술, 그리고 돌에 대한 지식을 계속 사용하고 있습니다.
무대 및 관람석: 국가 지정 중요 유형 민속 문화재
가부키: 지방 지정 무형 문화재



Nakayama Senmaida ("Thousand Rice Terraces")



쇼도시마 농촌 가부키 무대와 관람석 나카야마 무대



산과 바다 사이 쇼도시마의 고지대에 위치한 나카야마에는 농촌 가부키 극장의 오랜 전통이 있습니다. 석조 관람석이 있는 상설 무대에서 가부키를 공연하는 것입니다. 나카야마 지역은 센마이다(천 개의 논 계단)라고 불리는 계단식 논으로 유명한 지역입니다. 이 논은 경작 가능한 땅이 거의 없는 이 섬에 밭을 만들기 위해 돌로 쌓은 것입니다. 쇼도시마 사람들은 풍년을 기원하고 농촌 가부키의 전통을 지키면서 아름다운 계단식 논을 유지하기 위해 지혜와 기술, 그리고 돌에 대한 지식을 계속 사용하고 있습니다.
무대 및 관람석: 국가 지정 중요 유형 민속 문화재
가부키: 지방 지정 무형 문화재



간장 마을과 채석 공구



히시오노사토(간장 마을)는 오래된 간장 공장 인근에 있습니다. 공을 으갠 때 쓰던 목직인 돌들이 마을 풍경과 어우러져 줄지어 있습니다. 수세기 동안, 일상적으로 사용된 이 큰 돌들은 간장, 일본어로 쇼유를 생산할 때 없어서는 안 되는 도구입니다. 약 400년 전 간사이 지역에서 쇼도시마 섬에 도달한 쇼유 문화는 오사카 성을 둘러싼 해자를 짓기 위해 쇼도시마에서 오사카까지 석재를 운반한 지역 간 해상 무역의 결과입니다.
국가 등록 유형 문화재(건축물) 포함



도노쇼 혼마치의 도시 풍경 (미로의 도시)



도노쇼 혼마치는 외지인이 길을 잃기 쉬운 좁은 길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지역입니다. 이는 비산 제도 옛 마을들의 방어진인 미로 마을 배치의 좋은 예를 보여 줍니다. 마을 한복판에서 눈에 띄는 것은 사이코지의 붉은 칠을 한 삼층탑입니다. 마을의 상징이자 방문객의 랜드마크이며, 미로 마을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장소입니다.



석공들의 노동요



쇼도시마의 석공들은 세대를 거쳐 전해진 그들의 노동요를 만들었습니다. 노래의 리듬은 석공들이 돌을 내리치는 작업을 연상시킵니다. 오늘날 이 노래는 악기와 춤이 더해져 축제에서 공연되고 있습니다.



이시키리 스시



밥을 정사각형으로 만든 전통 향토 스시로 이시키리(채석) 스시라고 합니다. 아마도 석공들이 고된 노동을 할 때 일상적으로 먹던 음식일 것입니다. 후이고 축제, 아마노카미 축제, 북부 쇼도시마의 각종 행사 등 쇼도시마의 다양한 연례 축제에서 항상 제공됩니다.



쇼도시마의 산악 영지



쇼도시마의 산악 풍경에는 전통적으로 신성시되는 곳이 많습니다. 총 길이 약 150km의 쇼도시마 영지 순례길은 88개 유적지로 이어지는데, 이들 중 상당수는 돌로 된 절벽을 따라 동굴에 있습니다. 쇼도시마의 정신적 삶은 돌과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멧돼지와 사슴으로부터 농작물을 보호하는 시시가키 석벽



멧돼지, 사슴, 다른 동물들로부터 밭을 보호하기 위해 세워진 석벽입니다. 1790년 정부 문서에 쇼도시마 내부를 중심으로 총 길이 약 120km의 석문 벽이 세워졌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른 기록들은 모든 마을 사람들이 석벽의 축조 및 유지에 참여했다는 것을 보여주는데, 이는 석조 기술이 지역 주민들 사이에 매우 널리 퍼져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도노쇼초 지정 사적지 쇼도시마초 지정 유형 민속 문화재



아마노카미 축제



이 고대 축제는 숙련된 솜씨와 안전을 기원하는 행사입니다. 유명한 성 건축가 도도 다카토라가 운영하던 니시노타니 채석장 인근 오야마즈미 신사에서 지역 주민들이 매년 1월 9일에 축제를 계속 개최하고 있습니다. 이 축제는 석조업과 해상 운송에 의존하던 이곳 지역 유산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마루가메시

가사시마 촌락

MARUGAME KAGAWA

마루가메 시는 가가와 현의 해안선 중앙 부근에 위치합니다. 북쪽에는 세토 내해 국립공원이 있으며, 남쪽으로는 사누키 산맥으로 산들이 이어져 있습니다. 그 사이에는 사누키 평야의 농촌 지역이 있습니다. 마루가메는 일찍부터 상품의 무역 중심지가 되었고, 해상 운송에 있어 전략적 요충지로 발전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시와쿠 제도는 늘 수군 및 물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도, 바닷바람은 물의 역사 이야기를 품고 있습니다.



오노에테이(오노에 저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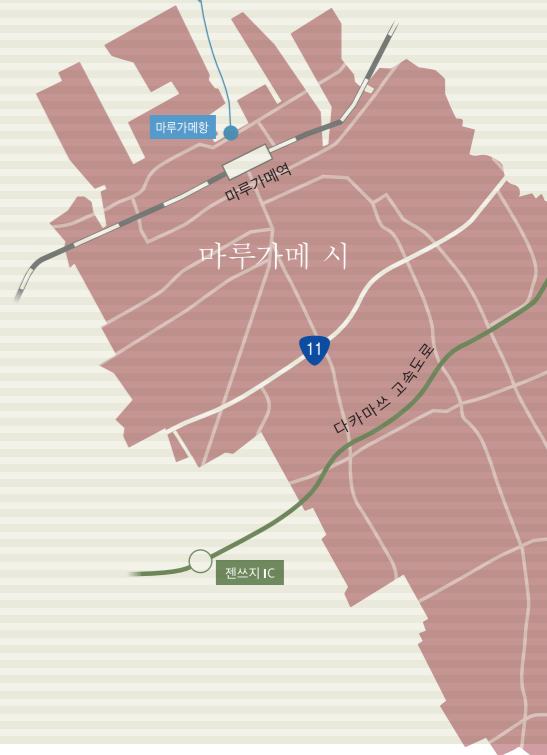
지금도 바다에서 온 강자들의 꿈은 시와쿠의 온화한 다섯 개 섬의 상공을 떠다닙니다.



시와쿠 제도

SHIWAKU ISLAND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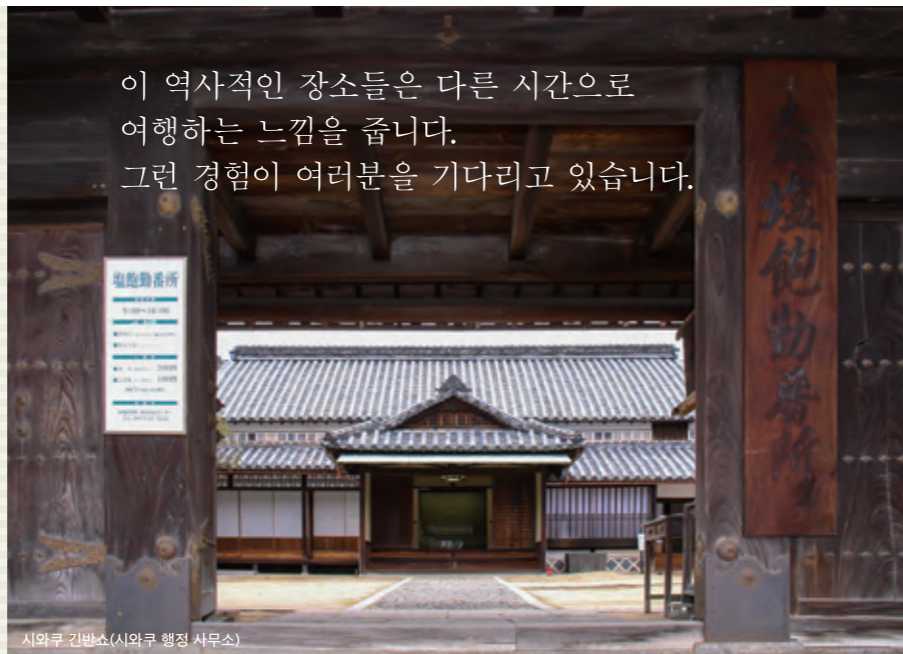
시와쿠 제도는 니시 비산 세토에 있는 다양한 크기의 28개 섬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섬들 가운데 마루가메 시에 속하며 사람이 거주하는 5개 섬은 혼지마, 우시지마, 히로시마, 테시마, 오테시마입니다. 이 섬들은 옛날부터 수군과 인연이 깊었으며, 많은 역사 애호가들에게 시와쿠 수군과 시와쿠 화물선에 대해 잘 알려져 있습니다. 혼지마의 시와쿠-긴반쇼와 가사시마 지구 건물군은 역사 문화의 명소입니다. 관광객들은 마루가메 시를 이 섬들을 방문하는 출발지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일본 문화유산을 구성하는 문화재

마루가메 시

시와쿠 제도는 한때 해운 무역으로 번창했습니다. 무역업으로 번성한 부유한 가문들은 좁은 길을 따라 집을 지었는데, 이는 혼지마 섬의 독특한 도시 경관을 형성하게 되었습니다. 도시 풍경 외에도, 채석장과 부유한 가문의 거주지를 포함한 역사적인 장소들이 시와쿠 제도 방문객들의 경험을 풍요롭게 하고 있습니다.



이 역사적인 장소들은 다른 시간으로 여행하는 느낌을 줍니다. 그런 경험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시와쿠 킨반쇼 (시와쿠 행정 사무소)



시와쿠 혼지마의 다칸보 산 채석장 터

이곳은 뛰어난 군대로 알려진 시와쿠 수군의 본거지였던 혼지마 섬에 있습니다. 채석장은 오사카 섬이 건설되던 시기에 호소카와 가문에 의해 운영되었으며, 가문 기록에 의하면 9개월이 조금 안 되는 기간인 1623년 3월부터 11월까지 4개의 다른 작업팀이 총 14만 9,228일 동안 근무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채석장은 오사카 섬의 돌축대에 있는 거대한 돌들 중 1,889개를 제공했습니다. **시 지정 사적지**



시와쿠 킨반쇼 (시와쿠 행정 사무소)

16세기 말 일본 통일 전쟁 중에 도요토미 가문에 대한 충성의 대가로 시와쿠 제도에 대한 통제권이 이 섬에서 온 650명의 선장들에게 주어졌습니다. 막부의 행정은 처음에는 도시오리 (정로)라고 불리는 네 명의 대표에 의해 처리되었고, 그들은 교대로 인장을 집에 보관했습니다. 1798년 정부 개혁의 결과 행정 사무소가 세워졌고 세 명의 대표가 번갈아 정무를 담당했습니다. 시와쿠 킨반쇼는 1860년 재건된 행정 사무소로, 현재는 유명한 시와쿠 선원들의 역사와 업적에 관한 전시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국가 사적지**



지역 수장의 묘

16세기 후반 시와쿠 수군의 지도자들이 각기 다른 지역의 공식 수장으로 임명되었고, 그 직위는 후손들에게 계승되었습니다. 최초의 수장들은 이리에, 미야모토, 오시타, 사나기 가문 출신이었고, 그 가문의 일원 중 몇몇의 묘지는 아직도 혼지마에 있습니다. 가장 이른 것은 오사카 섬이 건설된 시기인 1626년 세워진 것이며, 이후 세대에는 3m 이상 높이의 묘가 세워졌습니다. **국가 사적지**



가사시마 촌락

국가 중요 역사 건축물 보존 구역인 가사시마 구는 에도 시대 (1603-1867)에 시와쿠 수군과 상인 화주의 본거지로 번창했습니다. 삼면이 산으로 둘러싸여 있고 북쪽은 훌륭한 천연 항구로 둘러싸인 이 지역은 좁은 골목길과 남북을 가로 지르는 도소지, 항구를 따라 동서를 가로 지르는 마초도리 등 2개의 넓은 길이 교차하고 있습니다. 길가에 있는 많은 주택은 유명한 시와쿠 목공의 전통 유산인 돌출 격자창과 평면 격자창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요 전통 건축물 보존 구역**



고가라스 신사 도리이 문

고가라스 신사의 정문입니다. 두 개의 가로대가 있고 위쪽 가로대의 끝부분이 구부러져 있는 전형적인 묘진 도리이 양식을 보여줍니다. 오사카 성 축성과 관련된 전설이 있는 사쓰마 출신의 유명한 석공 기노카헤이와 현지 석공 구로베이에 의해 1627년 지어졌습니다. **시 지정 유형 문화재(건축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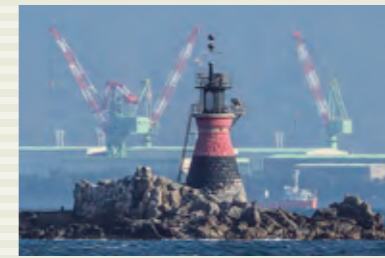
치토세자 (치토세 극장)

치토세자 극장은 1862년 시와쿠 다이쿠(시와쿠 제도의 목공)가 일본 각지에서 시와쿠 수군(숙련된 선원 단체)의 후손으로 번창하면서 건립한 극장입니다. 혼지마 섬에서 채굴된 화강암은 극장의 석조 토대로 사용되었으며, 건물 전체가 시와쿠 목공의 기막힌 솜씨를 보여줍니다. 이 극장은 아직도 혼지마 섬 주민들이 섬의 번영한 역사와 문화를 대대로 전하기 위해 사용하고 있습니다. **시 지정 유형 문화재(건축물)**



오노에테이 (오노에 저택)

오노에 가문은 일본 북부의 아오모리까지 석등과 다른 석재들을 운반했다는 기록이 있는 등 해상 운송으로 번창했습니다. 성처럼 높은 석벽으로 둘러싸인 이 웅장한 저택은 에도 시대(1603-1867년)의 해상 운송업의 번영을 보여주는 증거이며, 유명한 시와쿠 목공 전통의 솜씨를 보여주는 부분이 많습니다. 약 200년 전에 지어진 저택으로, 섬의 채석장에서 가져온 매력적인 아오키석으로 만든 벽이 있으며 집은 느티나무 목재로만 지어졌습니다.



하부시이와 등대

이 등대는 히로시마에서 남쪽으로 1km 떨어진 지름이 50m 정도 되는 하부시이와 암초에 서 있습니다. 높이는 13m이며 화강암으로 지어졌습니다.



하부시이와 등대 기름 창고

하부시이와 암초에 있는 등대용 기름을 보관하기 위해 지어졌습니다. 화강암 외벽 마감의 대조가 건축물 자체의 아름다움을 보여줍니다. 등대와 창고 모두 1895년 완공되었습니다.



이시노사토 박물관

히로시마 섬에 위치한 옛 니시 초등학교의 일부를 역사 박물관으로 개조했습니다. 섬의 유명한 아오키 화강암과 관련된 도구와 문서, 그리고 기계화 이전 시대의 일상 생활에서 나온 도구들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오토잔(오토 산)과 오토사바쿠(오토 사막)

오토 산은 히로시마 섬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정상 부근에는 화강암이 풍화되어 형성된 마사토가 사막처럼 펼쳐져 있어 오토 사막이라 불리는 장소가 있습니다. 화강암 자연석이 이곳 저곳에 흩어져 있어 공중정원을 연상시키는 곳입니다. 전승에 따르면 한때 이곳에 화려한 절이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모든 건물들이 화재로 소실되어 현재 남아 있는 것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신교잔(신교 산)

세토 내해가 잘 보이는 신교잔(신교 산)은 유명한 승려인 고보다이시(구카이)와 관련된 성지 중 하나입니다. 거대한 돌과 기괴한 바위가 있는 산 정상은 신과 부처를 숭배하는 장소입니다. 신교잔의 채석장에 생산되는 화강암은 '아오키석'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풍경과 문화를 통해 역사를 찾아갑니다. 돌과 관련된 정서를 느낄 수 있습니다.

오토잔(오토 산)과 오토사바쿠(오토 사막)

가사오카시

KASAOKA OKAYAMA

가사오카시는 오카야마 현 남서부에 있으며, 서쪽은 히로시마 현 후쿠야마 시와 인접해 있습니다. 세토 내해에 면해 있는 이 도시에는 가사오카 제도로 가는 항구가 있으며, 가사오카 만에 개발된 광대한 간척지, 그리고 세계에서 유일한 편자 박물관으로 유명한 가부토가니 박물관이 있습니다.

경치가 아름다운 가사오카 제도에는 사람이 거주하는 일곱 개의 섬이 있습니다. 관광객들은 이곳에서들과 관련된 독특한 역사와 문화를 즐길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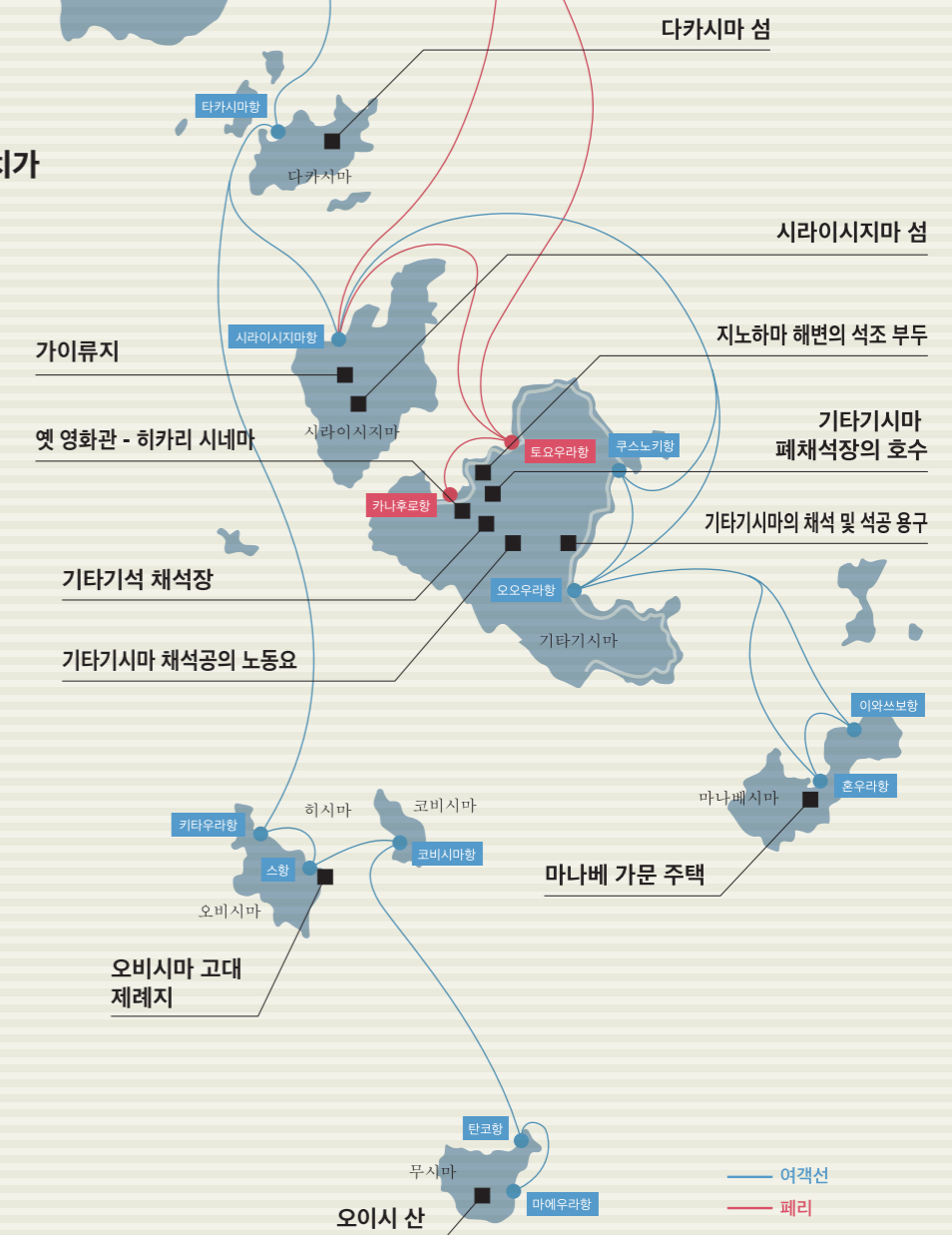


바다에는 31개 섬의 아름다움과 잊을 수 없는 경치가 어우러져 있습니다.

가사오카 섬

KASAOKA ISLANDS

가사오카 제도는 오카야마 현의 남서쪽 가장자리에 놓여 있습니다. 다양한 크기의 31개 섬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그 중 사람이 거주하는 섬은 다카시마, 시라이시지마, 기타기시마, 마나베시마, 오비시마, 고비시마, 무시마 등 7개입니다. 각각의 섬은 독특하고 뚜렷한 특징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섬의 방문객은 즐거운 분위기와 잊을 수 없는 경치에 둘러싸이게 됩니다. 스미요시 항에서 가사오카 제도로 향하는 여객선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시라이시지마와 기타기시마의 여객선은 후시고에 항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일본 문화유산을 구성하는 문화재

가사오카 시

화강암 거석은 이 지역의 독특한 자연 경관의 일부이며, 정신적 피난처를 찾는 사람들이 숭배하는 대상이었습니다. 가사오카 제도의 감탄을 자아내는 풍부한 돌은 주로 기타지마에서 번성한 채석 개발로 이어졌습니다. 채석한 화강암은 해상으로 운반되어 일본 전역의 건축물을 짓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기타기석 채석장



기타기석 채석장

이 채석장은 기타지마 섬 특산품인 '기타기석'을 생산하는 곳입니다. 1892년 세워진 곳으로, 기타기 화강암은 메이지 세이메이칸, 도쿄역 등 중요 문화재로 지정된 건물에 사용되어 왔습니다. 최고 품질의 돌을 찾아 땅속 깊이 땅을 파다 보니 우뚝 솟은 암벽이 남게 되었습니다. 전망대에서 장엄한 경치를 볼 수 있습니다.



기타지마의 채석 및 석공 용구

기타기 화강암의 채석 및 가공에 사용되었던 도구들이 기타기 중학교의 기타기 화강암 기념실에 영구 전시되어 있습니다. 땅에서 돌을 채취하기 위한 채석 공구, 석재 블록을 마감하기 위한 석공 도구, 공구 손질을 위한 대장간 공구 등이 있습니다. 채석 공구 중에는 돌을 쪼개는 쪼개기, 돌을 사람의 힘으로 다듬기 위한 다양한 길이의 끌, 망치가 있으며 1952년 도입된 기계화 드릴과 치평 해머도 있습니다. 메이지 시대의 전통 공구뿐만 아니라 소와 시대의 기계화 공구까지 포함하여, 이 주목할 만한 수집품들은 일본의 석조 기술과 채석 산업의 발전을 보여줍니다. 국가 지정 유형 민속 문화재



기타지마 폐채석장의 호수

기타지마의 버려진 채석장 터에 빗물이 채석장 구덩이를 가득 채워 호수 같은 풍경을 만들었습니다. 지노하마 지역에 위치한 이 호수는 마치 산수화를 보는 듯한 수려한 경치를 보여줍니다. 이곳은 채석업의 역사를 보여주는 유적지이기도 합니다. 채석 공구들을 손질하던 곳에는 아직도 남은 헛간이 서 있습니다.



지노하마 해변의 석조 부두

지노하마 해안선을 따라 인근 기타기 화강암 채석장에서 나온 자투리 돌로 긴 석벽을 쌓았습니다. 큰 돌과 작은 돌을 결합한 솜씨 좋은 석조 작품에는 많은 골 자국이 남아 있어 이곳이 채석업의 본고장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지노하마 항구는 소형 석조품을 선적하는 장소였습니다.



다카시마 섬

세토 내해의 풍경을 잘 볼 수 있는 가미우라 산 전체는 국가 명승지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 섬은 천여 년 전에 쓰여진 두 개의 역사서에서 언급된 장소입니다. 고지키(고사기)와 니혼쇼키(일본서기)에는 지우 천황에 의해 다카시마에 안구(임시 황궁)가 세워졌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가미우라 산 정상에는 높이 8m의 큰 돌로 만든 다카시마 안구 이시히(유적비)가 있습니다. 산비탈에는 마나이라고 불리는 우물이 있는데, 진무 천황이 그곳에서 천신에게 바칠 물을 길었다고 합니다. 국가 명승지



오비시마 고대 제례지

이 고대 유적지는 구 히시마 초등학교의 부지에 있습니다. 나라와 헤이안 시대(8-12세기)에 백과 선원의 안전을 위한 기도 의식이 이곳에서 거행되었습니다. 1962년, 학교 운동장에서 우연히 청동거울, 구리 방울, 토기 등이 묻혀 있는 것이 발견되었습니다. 여기에는 작은 나라산사이 삼색 도자기 황아리, 청동 동전, 그리고 큰 암벽 아래쪽에 놓였던 작은 점토 난로 등 종교적 의식에서 전형적으로 사용되는 물품들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 의식용 물품은 아마도 당시의 수도인 나라와 고토에서 가져온 것으로 추측됩니다. 연구원들은 정기적으로 당나라에 가는 일본 사신들의 안전한 여행을 위해 기도하는 등 이 장소가 당시 황실의 중요한 의식들 중 하나에 사용되었을지도 모른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출토된 유물들은 가사오카 시 지방사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습니다. 시 지정 사적지



마나베 가문 주택

중세 시대 마나베시마 섬은 마나베 수군이라고 불린 선원들의 본거지였습니다. 이들이 세운 마을은 해상 운송의 중심지로서 비산 제도의 유산을 상징합니다. 이 마을은 일반적인 교차로나 사거리가 없는 좁은 길로 미로처럼 만들어졌는데, 이는 전쟁기의 전형적인 방어를 위한 설계입니다. 섬의 유서깊은 마나베 가문의 주거 단지에서는 이 지역 전통 건축 양식의 좋은 예를 볼 수 있습니다. 주택은 1870년에 지어졌으며, 다른 건물로는 우체국, 창고, 대문, 헛간이 있습니다. 국가 지정 유형 문화재(건축물)



가이류지

공식 이름은 고보 산 가이류지라고 하는 이 절은 806년 고승 고보 다이시가 창건한 절입니다. 다이시도 불당은 고보 다이시가 머무는 동안 수행을 했다고 전해지는 거대한 바위 아래에 있습니다. 1183년 인근 미즈시마에 겐에이 전쟁 해전의 전사자를 추모하는 절이 세워졌고, 1625년 후쿠야마 성주인 미즈노 가츠나리가 기도 사원으로 재건해 가이류지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다이시도는 88 개의 절을 순례하는 고노시마 순례에서 가장 중요한 절로, 성지 순례를 마친 사람들이 여행을 마무리하기 전에 들르는 장소입니다.



옛 영화관 - 히카리 시네마

기타기 화강암 산업이 절정에 달했을 때, 작은 섬 기타지마에는 4개의 영화관이 있었습니다. 히카리 시네마는 1950년대 초반부터 1967년까지 운영되었습니다. 당시의 실비와 영사기가 그대로 남아 있으며, 무대처럼 설계된 스크린과 의자가 고풍스러운 분위기를 연출합니다. 폐관 후 오랫동안 극장이 사용되지 않았지만 섬 주민들이 함께 되살려 냈습니다. 현재는 친목 클럽 모임에 사용되고 있으며, 기타기 화강암과 기타지마 돌의 역사에 관한 다큐멘터리 영화를 상영하는 데 사용되고 있습니다.



오이시 산

큰 돌을 뜻하는 이름과 같이, 실제로 무시마 섬의 오이시 산 곳곳에는 화강암 바위가 있습니다. 이 산은 섬과 시코쿠 사이의 해역을 지나는 세토 내해의 동서간 간선 항로를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특히, 1922년에 건설되고 1984년에 재건축된 이 산의 남쪽 측면에 있는 등대에서는 바다의 '항로'를 오가는 크고 작은 배들을 인상적으로 조망할 수 있습니다. 이 경관은 과거 비산 제도도 일본 전역의 교류가 어땠는지 보여줍니다.



시라이시지마 섬

하얀 화강암이 시라이시지마 섬 곳곳에 드러나 있는데, 여기에서 하얀 돌을 뜻하는 시라이시라는 이름이 유래했습니다. 산 정상에 있는 산책로는 다양한 거석과 기이한 형태의 암석을 볼 수 있으며, 세토 내해의 멋진 경치를 볼 수 있는 하이킹 및 오리엔테이션 코스로도 유명합니다. 마치 거인의 갑옷을 입은 것처럼 각자 무늬를 띤 일본의 천연기념물 '갑옷바위'를 비롯하여, 하토미와 모 오다마리와 거석 등은 꼭 한번 볼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섬 곳곳에 흩어진 거석은 섬사람들의 정신 문화와 연결되어 일부는 기도의 대상이 되기도 했습니다. 거석 옆에 모셔진 시라이시지마 섬 88명지의 석불에는 섬 주민들의 간절한 소망이 담겨져 있습니다. 국가 명승지



기타지마 채석공의 노동요

돌을 손으로 캐던 시절, 일꾼들은 땅에서 돌을 떼어내고 쪼개어 모양을 만드는 고된 일을 하며 노래를 불렀습니다. 이 노래는 일꾼들이 반복적인 리듬에 맞춰 꿀을 휘두를 수 있게 하여 효율적인 작업을 도왔습니다. 이 민요에는 다음 가사가 들어 있습니다. '오사카 성도 기타기산 돌이 지탱하네' 작업이 기계화되면서 노동요는 들리지 않게 되었으며, 노래는 지역 보존회에 의해 보존되고 있습니다.



시라이시지마 섬